

日, 총52대 군용기 구매키로 중장기 국방계획의 일환

일본 국방부는 내년도 군용 항공기 조달계획을 확정, 이를 예산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내년 고정익 및 회전익기 52대를 구매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군에 분산 배치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총 56대가 승인된 바 있다. 최종 확정은 일본정부승인이 있는 후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일본 공군은 총 27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 9대가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는 F-2A/B 전투기이고, 가와사키중공업의 T-4 훈련기 10대, 걸프스트림(Gulfstream)사의 U-4수송기 1대, 재난구조용 레이디온 U-125A 호커(Hawker)기 3대, 비치제트(Beechjet)사이 T-400 1대, 그리고 시콜스키(Sikorsky)/미쓰비시 중공업의 UH-60J 3대 등이다. 육군의 경우 15대 이상, 해군은 8대이상의 항공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 국방부의 1998년 조달계획은 1996-2000년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동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육군에 AH-1S 헬기4대(탱크요격용)와 CH-47JA 헬기 12대(수송용)를 조달할 예정이며 해

군에 경우 SH-60J 37대, 공군에는 미쓰비시 F-2 전투기 47대와 CH-47J 6대 그리고 T-4 훈련기 59대를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

中, 미사일 구매에 저울질 러시아, 이스라엘 대상

중국 공군은 최근 공중전에 사용할 미사일(AAM) 구매를 놓고 이스라엘 및 러시아와 논의중이다. 대상 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의 Python-4와 러시아 빔펠(Vympel)사의 R-73(A-11 Archer) 개량형인 F-74ME이다.

라파엘사는 이미 중국 공군에 Python-3 AAM을 수출한 바 있다. Python-4을 구매할 경우 중국의 보다 다양한 기종에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라파엘사는 설명하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양국의 미사일을 모두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에서 구매한 수호이(Sukhoi)-27에 R-73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조달단계에 있다. Python-3의 경우 청도 F-7과 심양 F-8 기종에 장착되고 있다.

빔펠사는 지난 8월 개최된 러시아 에어쇼에 K-74ME의 모습을 전시한 바 있다. 동 미사일은

R-73의 개량형으로 보다 넓어진 조준각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크거나 무게도 R-73E와 같기 때문에 범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러시아는 F-74를 러시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F-74ME 미사일만을 수출해가고 있다.

佛 내년 국방예산 대폭 삭감

프랑스 군수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삭감으로 또 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프랑스 국방예산은 총 397억 달러로 3.3% 감소될 예정인데 이중 군조달에 8.7%의 삭감이 예상된다.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 등 일반무기에 7.8%, 핵무기 등에 13.3%, 군사 우주부문에 5.6%씩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다소(Dassault)사의 라팔(Rafale)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당초 48대의 조달계획과는 달리 내년 겨우 2대가 프랑스 국방부에 조달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달규모의 축소는 프랑스 항공우주업체의 리스트럭처링과 합병등의 개편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유럽차원의 군수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 예산삭감에 대한 여파가 전 유럽으

로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격용 헬기인 타이거 (Tiger) 헬기와 NH-90 구매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구매키로 합의,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라지 2000 의 경우 구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C-160 및 C-130 군수송기를 대체할 프랑스의 FLA(Future Large Aircraft) 개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에로스빠시알(Aerospatiale)사가 개발한 핵탄두 미사일 M51도 잠정적으로 2006년부터 생산시작할 예정에 있는등 군수 프로젝트에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공군의 정비, 수리 그리고 오버홀(overhaul) 예산도 영향을 받아 운용 대기중인 항공기의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군조달계획의 추가절감으로 약 1만~1만5천명의 노동력 삭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방조달계획 재검토
재정난 가중...**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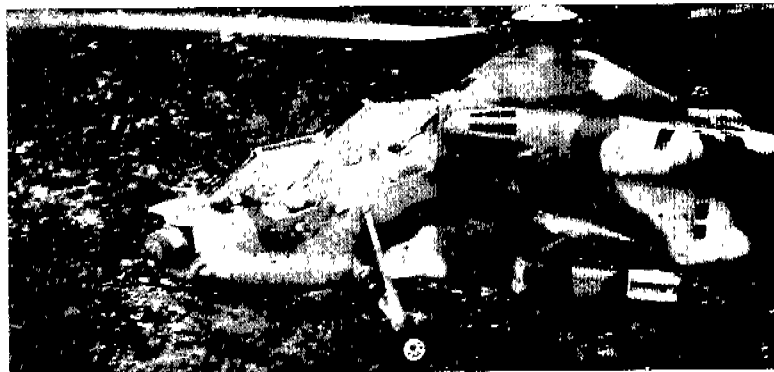
부의 경제난으로 인한 군비감축 요구에 의해 무기구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폐 및 주식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2%씩의 예산감축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5개년 계획에서 남은 36개월에 대한 새로운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산 재편성은 결국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대규모 군수프로젝트를 취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 항공무기조달도 이에 포함된다. 지연될 가능성이 가장 큰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안경계전투함(Offshore Patrol Combatant, OPC) 프로그램으로 해군은 27대의 전투함을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이 불분명해

진 현 시점에서 전투함에 필요한 헬기의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헬기제조업체들이 사업확득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GKN 웨스트랜드(Westland)사는 수퍼링스 헬기구매에 대한 의향서에 서명한 이후 해군과 상세한 기술상담을 벌이고 있다. 카만(Kaman)은 SH-2G Super SeaSprite 기종을 해군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첫 주문은 3~6대로 OPC 프로그램이 수행될 경우 더 많은 구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용도의 헬기사업도 세밀히 검토중인데 여기에 공격용 헬기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계획됐던 수송용 헬기도 시콜스키(Sikorsky)사의 S-61 Nuris의 새단장으로 인해 조달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공격용 헬기도 조달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헬기 제작사들은 말레이시아의 군예산 재검토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